

【논 문】

광개토왕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고구려 불교

남무희 *

┃ 차 례 ┃

1. 머리말
2. 고구려의 요동지역 확보
3. 광개토왕의 육왕탑 건립
4. 요동지역의 불교계 동향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광개토왕과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고구려 불교가 어떠한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요동성에 세워진 육왕탑 관련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런 속에서 ‘고려’라는 국명에 담긴 의미와 함께 ‘성왕’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개토왕과 장수왕대를 지나면서 발전했을 요동지역의 불교계 동향이 갖는 고구려적인 의미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광개토왕대 평양에 9사를 창건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불교계 동향과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동향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

www.kci.go.kr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주제어: 고구려 불교, 승랑, 옥왕탑, 성왕

1. 머리말

고구려불교사에서 관심이 두어진 부분은 불교초전기 문제, 승랑을 비롯한 고구려 승려들의 활동과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의 성격문제, 고구려 멸망기 연개소문의 도교진흥정책에 반발하였던 보덕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대응이 어떠한지였다.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전래된 불교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화교류의 측면도 고려하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¹⁾ 이러한 연구는 주로 최근 발굴되고 있는 고구려 유물 유적 및 고분벽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측면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²⁾

하지만 고구려는 소수림왕대 체제 정비 이후 광개토왕과 장수왕대를 거치면서 광활한 지역을 차지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후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민족 및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군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러한 측면을 한꺼번에 살펴보기는 어렵다.

1)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구사를 세밀하게 검토한 연구로는 박윤선의 논문이 참고된다(2005, 「고구려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35). 또한 최근에 김진순은 감숙지역의 문화가 중원을 거치지 않고 고구려로 바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2008,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미술사학연구』258).

2) 鄭好燮, 2009, 「高句麗 古墳의 造營과 祭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광개토왕과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고구려 불교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³⁾ 이러한 검토는 고구려가 언제 요동성을 확보하였는가의 문제와 함께 요동성확보가 갖는 고구려에서의 문제, 그리고 대외문물교류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중국정사 및 『고승전』을 비롯한 외국사료와 『삼국사기』·『삼국유사』를 포함한 국내자료를 함께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금석문자자료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고구려의 요동지역 확보

高句麗가 遼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는⁴⁾ 이미 東川王때부터 있었다.⁵⁾ 그후 5胡16國時代(317~439)에 前燕이 이곳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요동을 사

3) 필자는 예전에 「高句麗 僧朗의 生涯와 그의 新三論思想」(1997, 『北岳史論』4)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는 그 당시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일부 이용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그 당시에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4) 高句麗가 遼東을 確保하고자 했던 의도는 鐵과 연결시켜 이해되기도 한다. 遼東城은 당시까지 漢民族이 추구하는 東北面經營의 정치적 중심지였다. 『漢書地理志』에 鹽官과 鐵官을 두었던 平郭縣이 遼東 18郡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鹽이나 鐵의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고구려는 鐵生産地인 遼東을 점령하면서 漢代 이래 널리 알려진 平郭縣의 鐵場을 개발하여 生産力과 武力增強에 이바지하였을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1, 83~84쪽).

5) 『三國史記』 17, 「高句麗本紀」 제5 東川王 12년(238), “魏太傅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王遣主簿大加 將兵千人助之 十六年(242) 王遣將襲破遼東西安平(上同, 16년조)”.

이에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⁶⁾ 이때 고구려가 요동을 처음으로 확보한 것은 前燕을 滅하고 북중국의 覇者가 된 前秦과 친선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이다(372). 이 무렵에 고구려는 遼東에 대한 지배권을 前秦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前秦은 南進에 주목적을 두었고 자신들의 세력기반도 遼東과 무관하였으므로 요동의 확보에 그렇게 집착을 보이지 않았다.⁷⁾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1> 40년(370)에 秦의 王猛이 燕을 쳐서 깨뜨렸다. 燕의 太傅 慕容評이 來奔함에 왕은 (그를) 잡아서 秦에 보내었다.⁸⁾

<2> 燕의 모든 州郡牧守와 六夷의 渠帥가 符堅에게 항복하였다. 郭慶이 餘燼을 추격하니 慕容評이 高句麗로 도망쳤다. 郭慶의 추적이 遼海에 이르자 高句麗는 慕容評을 엮어서 보내었다.⁹⁾

위의 기록을 검토해 볼 때, 고구려는 북중국의 覇者가 된 前秦과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즉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화해를 통하여 국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대내적인 체제정비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前秦으로부터 불교가 수용되는데 국가적으로 환영하였던 모습이 보인다.¹⁰⁾ 이러한 小獸林王의 佛教受容은 불교전래사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高

6)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자로는 공석구, 지배선, 田中俊明, 김영주, 이기동, 여호규, 강선, 김미경 등이 있다.

7) 전진의 세력기반은 지금의 감숙성 일대였다.

8)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 6 故國原王條, “四十年 秦王猛伐燕破之 燕太傅慕容評來奔 王執送於秦”.

9) 『晉書』 113, 「符堅」 上, “燕諸州郡牧守及六夷渠帥盡降于堅 郭慶窮追餘燼 慕容評奔於高句麗 慶追之遼海 句麗縛評送之”.

10) 당시 外來異色宗教인 불교를 국가적으로 환영하였으며 별다른 저항을 받음이 없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蔡印幻, 「高句麗佛教 戒律思想研究」 『佛教學報』 27, 1990).

句麗 佛教受容¹¹⁾을 王室이 주도하는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²⁾ 또한 고구려가 慕容評을 未知의 前秦에 縛送한 것은 慕容氏의 舊怨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破竹之勢로 東南下하는 前秦의 세력을 외교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¹³⁾

하지만 前秦이 東晉을 원정하다가 참패하게 되면서(383, 小獸林王 13년), 그 예하에 있던 慕容氏의 一族인 慕容垂가 국가재건에 성공한다. 이후부터 고구려는 後燕과 遼東을 두고 다시 대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치상황 속에서, 고국양왕은 요하 이동의 지역을 잠시나마 고구려의 영토로 귀속시켰다. 고국양왕이 후연에 대해 펼쳤던 기습전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3> 여름 6월에 (고국양왕은 군사 4만 명을 보내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연나라의 왕 모용수가 대방왕 모용좌에게 명하여 용성에 진주하게 하였다. 모용좌는 우리 군대가 요동을 습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마 학경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함락시켜 남녀 1만명을

11) 5胡16國에서 고구려에 불교를 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後趙와 前燕이 주목된다. 後趙의 佛教는 石勒과 石虎의 통치기에 佛圖澄이 활약하였는데, 당시 고구려와 우호관계 속에서 傳來可能性이 제기되기도 한다(李龍範, 1973, 「北朝前期佛教의 高句麗傳來」 『東國大學校論文集』12, p.148). 한편 高句麗와 前燕이 국경을 맞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은 사신의 교환이나 전쟁 등의 방법으로 교류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前燕을 통하여 고구려가 불교를 접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池培善, 1986, 「前,後燕의 宗教-佛教를 中心으로-」 『漢城史學』4, 131~140쪽).

12) 李珉容, 1973, 「佛教教團과 初期信仰의 性格」 『東國大學校論文集』12, 157쪽.

13) 李龍範, 1973, 「北朝前期佛教의 高句麗傳來」 『東國大學校論文集』12, 150~152쪽. 이때 前秦을 통해 전개된 불교는 그 자체가 정치와 밀착관계를 갖던 北方佛教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高句麗 立場에서는 平壤을 차지하기 위해 北上하는 百濟에 대한 위협을 막아야만 할 필요성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14) 姜在光, 2009, 「高句麗 廣開土王의 遼東確保에 관한 新考察-廣開土王碑 ‘丁未年條’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2, 참고.

사로잡아 돌아왔다

겨울 11월에 연나라의 모용농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요동과 현도 2군을 다시 차지하였다. 처음에 유주와 기주의 유랑민들이 많이 투항하여 왔으므로 모용농이 범양 사람 방연을 요동태수로 삼아 이들을 불러 위무하게 하였다¹⁵⁾

고국양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개토왕대에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하고 있음은 아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 광개토왕 원년(391) 9월에 북쪽으로 거란을 정벌하고 남녀 500구를 사로잡았으며 또 (거란에) 잡혀있던 본국 백성 1만명을 위문하고 타이른 후, 데리고 돌아왔다.¹⁶⁾

<5> 永樂 5년(乙未에 해당하는 해에 (광개토)왕은 碑麗가 △人을 돌려 보내지 않으므로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 富山을 지나 山을 등진 鹽水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 세 부락의 6, 7백의 營을 깨뜨리니 牛馬群羊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군대를 돌려 襄平道와 東來△城 力城 北豊을 지났다. 왕은 수렵을 하면서 국토의 경내를 遊觀하고 田獵하면서 귀환하였다.¹⁷⁾

위에 보이는 <4>의 기사는 광개토왕이 즉위년에 거란을 정벌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또한 <5>는 永樂 5년(395)에 광개토왕이 契丹을 정벌하고 수도로 귀환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나열 기술한 것이다.¹⁸⁾

15) 『삼국사기』 권 18, 고구려본기 6, 고국양왕 2년(385) 하 6월조.

16) 『삼국사기』 권 18, 고구려본기 6, 광개토왕 1년 추 9월조,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17) 王健群 著/林東錫 譯, 1993,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pp.217~233을 참고,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人 躬率王土 過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力城北豊 王備獵 遊觀土境 田獵而還”

18)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106.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국가발전에 긴요한 철의 생산지이며 전략적 요충이었던 서북의 요동 확보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이 직접 요동을 지나 멀리 거란까지 정벌함으로써 요동지역은 고구려가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후연은 요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新城과 南蘇城을 함락시키기도 했으나, 광개토왕은 오히려 지금의 朝陽 동북인 宿軍城까지 정벌함으로써 신성과 남소성의 복구는 물론 大凌河 너머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廣開土王 14년(405) 遼東城에 慕容熙의 침입이 있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다음해(406) 거란원정에 나섰던 모용희는 고구려의 木底城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간다. 다음해에 고구려는 步騎 5만으로 契丹城을 공격하는가 하면 궁궐을 증축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後燕은 404년부터 시작되는 鮮卑族인 拓跋氏(北魏)의 침략을 받아 점차 약화되어 가다가 慕容熙 때에 이르러 고구려 출신의 高雲에 의해 왕위가 찬탈되면서 망하게 된다(407).

3. 광개토왕의 육왕탑 건립

고구려의 요동지역 확보과정은 생각처럼 평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개토왕이 차지한 요동지역은 멸망기까지 줄곧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道宣이 편찬한 『집신주삼보감통록』에는 遼東城에 高麗 聖王이 건립한 育王塔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도 거의 그대로 실렸다. 지금부터는 「遼東城育王塔」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

<6> 『三寶感通錄』에 실려 있다. 高麗 遼東城 옆에 塔이 있다. 古老들

이 전하여 말하기를 옛날 高麗의 聖王이 국경을 어루만지며 다니다가 이 城에 이르렀는데 五色의 구름이 땅을 덮은 것을 보았다. 이에 구름 속으로 가서 찾아보니 僧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다가가면 없어지고 멀리서보면 다시 나타났다. 곁에는 三重으로 된 土塔이 있는데, 위는 마치 솥을 덮은 것 같았으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다시 가서 僧을 찾으니 오직 荒草만 있었다. 이에 그곳을 一丈이나 파보니 지팡이와 신발이 있었으며, 더 깊이 파내니 銘이 있었다. 碑銘에는 梵語로 쓰인 글자가 있었는데 侍臣이 알아보고, “이는 佛塔이라 이르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믿음이 일어나 七重의 木塔을 세웠다.¹⁹⁾

위의 기록처럼 遼東城에 育王塔이 있었다면 寺院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규모도 작지 않았을 것이다.²⁰⁾ 고구려는 이미 故國襄王 9년에 왕이 ‘佛敎를 崇信하여 福을 구하라’고 하는 敎旨를 내리고 ‘有司에게 명하여 國社를 건설하고 宗廟를 수리케 하였음’이 보인다. 또한 平壤을 확보한 이후에 廣開土王은 2년에 平壤에 九寺를 짓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育王으로 비취질 轉輪聖王은 廣開土王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²¹⁾를 참고한다면, 遼東을 확보한 이후 遼東城에 寺院을 건립하고 育王塔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廣開土王代의 사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高麗’라는 국명의 문제 및 ‘聖王’의 실체를 두고, 여러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²²⁾

19) 『三國遺事』 권제3, 塔像4 「遼東城育王塔」조에 의하면, “高麗遼東城傍塔者 古老傳云 昔高麗聖王 按行國界次 至此城 見五色雲覆地 往尋雲中 有僧執錫而立 既至便滅 遠看還現 傍有土塔三重 上如覆釜 不知是何 更往覓僧 唯有荒草 掘尋一丈 得杖并履 又掘得銘 上有梵書 侍臣識之 云是佛塔 因生信 起木塔七重”이라고 되어 있다.

20) 申東河, 1988, 「高句麗의 寺院造成과 그 意味」 『韓國史論』19, 서울대, 5쪽.

21) 申東河, 앞의 논문, 27쪽.

22) 『삼국유사』에 보이는 요동성 육왕탑의 사례는 道宣(596~667)이 664년에 편찬한 『集神州三寶感通錄』의 기록과 668년에 道世가 편찬한 『법원주림』(권 38, 대정장 53, 588)에도 보인다. 도선의 원문과 일연의 『삼국유사』의 내용을 비교하면, 蒲圖라는 단어를 설명

위의 기록에 보이는 ‘高麗’는 대체로 高句麗의 약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高麗’라는 국호는 일정한 시기 이후에만 사용하였다는 점과 후기의 원 기록에 高句麗라는 국호가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국내의 금석문에서조차 ‘고려’라는 국호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단순히 ‘고구려’의 약칭이 아니라 ‘고려’라는 국호로 개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²³⁾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高麗’라는 국호가 중국문헌에 나타난 것으로 확실한 시기는 광개토왕 8년(398) 이후 장수왕 11년(423)과 23년(435)이라고 보았다. 이때 국호의 개정 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장수왕 10년대에 국호의 개칭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이를 광개토왕 시기로 올려 잡을 수 있는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²⁴⁾

하기 위해 써놓은 각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삼국유사』에서 중국불교문헌과 한국역사문헌을 인용한 경우는 대체로 원전의 용어를 잘 보전하고 있다. 일연은 중국불교문헌을 언급할 경우, 대부분 조심스럽게 하였다. 대체로 원문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일연은 근거없는 자료를 소개하지는 않았고, 원문의 자료를 줄이기만 하였다. 중국불교문헌을 자유롭게 교정하는 것처럼 용어를 쉽게 바꾸어 말하였다(맥브라이드 리차드, 2007, 『『삼국유사』의 신빙성 연구-중국 및 한국문헌자료의 사례-』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 23) 鄭求福, 1985, 「高麗時代の 史學史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1991 「한국의 역사가 金富軾」 『한국사 시민강좌』9, 136쪽 ; 1992, 「高句麗의 ‘高麗’國號에 대한 一考-『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호서사학』 19:20, 44쪽.
- 24) 국호의 개칭은 長壽王 15년의 평양천도와 관련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고구려의 대외적 문화적 발전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廣開土大王 이후의 비약적인 발전과 한문화의 성숙된 이해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함을 계기로 고구려에서 한자적인 의미가 없는 ‘句’자를 생략시켜 ‘高麗’라는 국호로 개칭함으로써 한자의 일반적 의미로 풀어도 좋은 의미를 갖는 국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측 자료 가운데 本紀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국호는 長壽王 10년대에 ‘高麗’로 고쳐진 후, 말기까지 高麗로 칭하여졌다. 그러나 국호의 개칭이 광개토왕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의 국호 개칭은 長壽王의 평양천도와 관련이 있거나 영토의 확장 등 국가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鄭求福, 1992, 「高句麗의 ‘高麗’國號에 대한 一考-三國史記의 기록

정구복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고구려가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에 ‘고려’로 국명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살핀 「요동성육왕탑」조에 보이는 ‘고려’라는 기록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聖王’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연 당시까지 ‘聖王’을 동명성왕으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연은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²⁵⁾ 동명성왕 당시에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聖王’을 동명성왕으로 이해하였던 이유까지 밝힌 것은 아니었다.

‘聖王’은 대체로 광개토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²⁶⁾ 그런데 金善淑은 고국양왕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²⁷⁾ 하지만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려면, 고국양왕이 요동지역을 순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국양왕설은 따르기 어렵다. 이에 조경철은, 고려의 성왕에 대해서는 동명성왕, 고국양왕, 광개토왕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성왕이 동명성왕일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일연은 부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요동성육왕탑의 기록에 보이는 ‘성왕’은 전륜성왕을 의미하는데, 동명성왕대에는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이라는 일연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조경철은 ‘광개토왕설’을 다시 주장하였다.²⁸⁾

이러한 위의 견해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연 당시까지

과 관련하여-」 『호서사학』19:20, 63쪽 및 65쪽).

25) 『三國遺事』 권제3 탑상 제4 「遼東城育王塔」에서는, “高麗聖王 未知何君 或云東明聖帝 疑非也”라고 하였다.

26) 신동하, 앞의 논문을 참고.

27) 金善淑, 2004,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聖王’에 대한 一考」 『新羅史學報』1.

28)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教」 『東北亞歷史論叢』20.

고주몽을 ‘聖王’이라고 이해하게 된 이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자도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금석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래 <표>가 참고된다.

<표> 모두루묘지명에 보이는 성왕의 사례)

위치	금석문 내용	聖王의 實體
3①~4⑦	河泊之孫 日月之者 鄒牟聖王 元出北夫餘	동명성왕
6⑩~7①	聖王	동명성왕
10③~④	聖王	동명성왕
10⑧~11③	國置上聖太王	고국원왕 ²⁹⁾
44⑥~45⑥	國置上大開土地好太聖王	광개토왕
48⑧~⑨	聖王	동명성왕

위에 제시된 <표>는 모두루묘지명에 보이는 성왕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모두루는 광개토왕대에 북부여방면에서 지방관으로 활약하다가 장수왕대에 사망한 인물로 보여진다.³⁰⁾ 그의 묘지명에 있는 내용이 모두 판독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聖王’의 예가 다수 보이고 있음은 주목된다. 그것을 위의 <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루묘지명에 보이는 ‘聖王’은 동명성왕(3개), 고국원왕(1개), 광개토왕(1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볼 때, 모두루가 살았을 5세기대 고구려인들은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도 추모성왕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후대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

29) 武田幸男, 1989,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ヤ』 岩波書店, pp.333~335(시노하라 히로카타, 2005, 위의 논문, 16쪽에서 재인용).

30) 盧泰敦, 1992, 앞의 글, 92쪽.

었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찬술할 당시까지 동명성제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광개토왕과 장수왕을 지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轉輪聖王’의 ‘聖王’관념이 개국시조인 고주몽에게까지 확대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요동지역의 불교계 동향

앞에서는 광개토왕대 요동지역 확보 및 그 당시 건립된 요동성육왕탑과 관련된 기록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요동지역에서 활동한 승려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요동지역의 불교계 동향이 어떠하였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遼東城에서 활약하였던 승려를 살펴보면 우선曇始가 주목된다.

<7> 釋曇始는 關中人이다. 出家한 후로 異跡이 많이 있었는데 발이 열 굴보다 희어서 비록 진흙탕물을 건너더라도 일찌기 젖지가 않았으므로 세상사람들이 모두 白足和尚이라고 일컬었다. 晉太元末年(396)에 經律數十部를 가지고 遼東에 와서 教化하였다.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널리 教化하였는데 三乘으로 顯授하고 歸戒를 세웠다. 晉義熙初(405)에 다시 關中으로 돌아갔다.³¹⁾

위의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曇始가 遼東에 와서 教化한 기간은 廣開土王 5년(396)부터 14년(405) 무렵까지이었으므로 그가 고구려불교에 미

31) 釋曇始 關中人也 自出家 多有異跡 足白於面 雖涉泥水 未賞沾濕 天下咸稱白足和尚 以晉太元末年 齎持經律數十部 往化遼東 乘機宣化 顯授三乘 立爲歸戒 晉義熙初 師復還關中(『海東高僧傳』流通 1-1 「釋曇始傳」).

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³²⁾ 또한 당시는 關中人인 것으로 보아 그의 불교경향은 順道와 阿道가 고구려에 전한 이후 북조계통의 불교경향을 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가 전한 불교의 내용에는 道安(314~385)의 本無義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광개토왕대를 지난 장수왕대 요동지역과 관련된 승려로는 요동성 출신의 승랑과 남조에서 이곳에 와 교화활동을 펴던 담초가 있다. 우선 장수왕대에 요동성에서 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僧朗의 出身을 알려주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8> 釋法度(437~500)는 黃龍人이다. 齊永元 2년(500)에 山中(攝山)을 말함에서卒하였는데 春秋 64세였다. 法度の 弟子에 僧朗이 있어서 先師를 이어서 山寺를 다시 다스렸다. 僧朗은 본래 遼東人이다. 그의 성품의 됃됨이가 널리 배우고 思力 또한 該普하였다. 무릇 그 經과 律은 다 능히 강설하였는데, 華嚴과 三論을 제일의 命家로 하였다. 今上이 그 그릇의 무거움을 알고 勅하여 모든 義士를 산으로 보내어 학업을 받게 하였다³³⁾

<9> 앞서 僧朗法師라는 유명한 대덕[名德]이 있었는데 고향인 遼水(遼東)를 떠나 京華에서 道를 물었다. 정규에 빼어났으며, 석학으로 조예가 깊었다. 일찍이 반야의 성을 이루었고 계율의 근본을 갖추었으며 방등의 지구를 천명하고 중도의 이치를 퍼뜨렸다. 북산의 북쪽과 남산의 남쪽에

32) 광개토왕은 요동을 점령한 이후 이곳을 순행하고 7층목탑을 세웠고, 7층목탑을 세우게 된 인연설화를 인도 아쇼카왕의 육왕탑과 결부시켰다. 나아가 광개토왕은 요동지역을 점령한 뒤, 이곳에 7층 목탑을 세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국외의 승려들을 적극 유치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고승전과 최치원의 봉암사지증대사비에 보이는 동진의 승려인 담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김상현, 2005, 「中國 文獻 所載 高句麗 佛敎史 記錄의 檢討-求法僧의 東亞細亞 佛敎에의 참여를 中心으로-」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235쪽).

33) 梁 慧皎(497~554) 撰 『高僧傳』 권제 8, 「釋法度傳」(대정장 50, 380 中~下)에 의하면, “釋法度 黃龍人 齊永元二年 卒於山中 春秋六十有四矣 度有弟子僧朗 繼踵先師 復綱山寺 朗本遼東人 爲性廣學思力該普 凡厥經律皆能講說 華嚴三論最所命家 今上深見器重勅諸義士受業于山”이라고 되어 있다.

있으면서, 皇都에 머물지 않고 장차 三紀를 밟았다. 양무제는 능히 四등을 행할 수 있었고 삼공의 이치를 잘 알았는데 누차에 걸쳐 호출의 편지를 내렸으나 듣지 않았다. 天監 11년(512)에 황제가 中寺 석승회와 영근사의 석 혜령 등 승려 10인을 산에 보내어 삼론의 대의를 자수하게 하였다³⁴⁾

<10> 山中法師(僧詮)의 스승(僧朗)은 본래 遼東人이다. 北地에서 三論을 배웠는데 鳩摩羅什法師의 義學을 간접적으로 배웠다(遠習).³⁵⁾

<11> 攝山の 高麗 朗大師는 본시 遼東城人이다. 北土에서 鳩摩羅什法師의 義學을 간접적으로 배웠다.³⁶⁾

이상에서 僧朗은 출신이 高句麗 遼東城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볼 때 僧朗은 遼東에서 이미 出家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승랑이 北地로 求法의 길을 떠나기 전까지의 思想傾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遼東城 高句麗人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고구려는 長壽王 15년(427)에 平壤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23년(435)에는 북중국의 霸者가 된 北魏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도³⁷⁾ 한편으로는 北燕

34) 陳侍中尚書令 江總持記, 「攝山棲霞寺碑銘」 『金陵梵刹志』4(「中國佛寺誌叢刊」, 江蘇廣陵古籍刻印社, 493~494쪽)에 의하면, “先有名德 僧朗法師者 去鄉遼水 問道京華 清規挺出 碩學精詣 早成波若之性 夙植尸羅之本 闍方等之指歸 弘中道之宗 致北山之北 南山之南 不遊皇都將涉三紀 梁武皇帝 能行四等善悟三空 以法師累降徵書 確乎不拔 天監十一年帝乃遣 中寺釋僧懷 靈根寺釋慧令等十僧 詣山諮受三論大義”이라고 되어 있다(김영태, 「해의문헌사료보초」 『불교학보』 17, 1980, 183쪽을 참고) 및 석길암, 「僧朗의 中國佛敎思想史의 地位-불교 중국화의 一視點-」 『불교연구』 22를 참고.

35) 隋 吉藏(549~623)撰, 『二諦義』 卷下(대정장 45, 108 中)에 의하면, “山中法師之師 本遼東人 從北地學三論 遠習什師之義”라고 되어 있다.

36) 隋 吉藏撰, 『大乘玄論』 권제1 「二諦體」 제5(대정장 45, 19 中)에 의하면, “攝山高麗朗大師 本是遼東城人 從北土遠習羅什師義”라고 되어 있다.

37) 이때 長壽王이 사신을 파견함에 北魏에서는 員外散騎侍郎 李敖를 보내어 장수왕을 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北魏도 고구려의 遼東城確保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魏書』 列傳 100, 「高句麗傳」). 그런데 『三國史記』에는 13년(425)에도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을 도와주기도 한다. 즉 北燕王 馮弘이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자 北魏의 항의를 무시하고 將軍 葛盧와 孟光 등을 보내어 北燕의 수도 龍城에 들어가 馮弘을 구출해 낸다(436). 北魏가 북중국을 통일함에(長壽王 27년, 439년) 고구려는 魏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후 北魏와의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長壽王 28년(440)부터 長壽王 50년(462)까지 양국간에는 국교가 단절³⁸⁾되어 있다가 462년 3월에 高句麗가 魏에 사신을 보냄으로써 양국관계는 정상을 회복하고 이후부터는 평화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遼東城 高句麗人인 僧朗은 高句麗가 遼東을 확보한 이후 北魏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長壽王 28년(440)부터 長壽王 50년(462) 사이에 遼東城에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³⁹⁾ 이렇게 볼 때, 僧朗은 遼東城에서 育王塔이 건립되고 寺院이 조성되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遼東은 고구려에 있어서 對西進 기지의 최전방으로서 중요한 곳이었다. 여기에 세워진 育王塔과 寺院도 군사적인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長壽王 50년(462) 이후부터는 魏와 고구려 사이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遼東은 중국에서 고구려로 문화가 들어오는 關門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僧朗은 당시 고구려에서 유행하던 불교의 여러 경향에서 順道가 전한 불교뿐만 아니라 支道林의 卍色義와 道安의 本無義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불교수업은 하였을 것으로 추

38) 이 당시 國交가 단절된 이유는 北燕王 馮弘을 압송해달라는 北魏의 요구를 高句麗가 거절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元嘉 16년에 宋의 文帝가 魏를 침략하고자 할 때에 長壽王이 말 800필을 보내어 宋을 도왔기 때문일 것이다(『南史』 79, 「夷貊列傳」 下, 「高句麗傳」).

39) 安澄이撰한 『中論疏記』(大正藏 65, 71 中)에서는 均正의 『四論玄義』를 인용하면서, “僧朗이 會稽 山陰에 은거하면서 少時에 說法하던 곳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僧朗이 會稽 山陰에 머무르던 시기는 476년 이후부터 480년까지의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사료에 보이는 少時를 20여세로 추측해보면서 그 연대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고구려와 北魏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僧朗이 遼東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측된다.

그리고 승랑이 北地로 求法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462년에 이르러 고구려와 北魏 사이의 긴장관계가 해소된 이후일 것이다.⁴⁰⁾ 북지로 구법한 승랑은 이후 남조로 南下하였다. 그리고 양무제 무렵에 섭산의 서하사에 은둔하였는데, 이때부터 남조에 신삼론사상을 소개하였다.

고구려 요동성 출신의 승랑이 북지로 구법하였다가, 남지로 남하해서 신삼론사상을 펴고 있던 시기인 장수왕대에 요동지역에 와서 교화활동을 펼친 승려로는曇超(418~492)가 있다. 담초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12> 釋曇超(418~492)는 清河人이다. 齊太祖即位年(479) 皇帝의 命으로 遼東에 와서 教化하였는데 禪道를 弘讚하였다. 그곳에서 2년을 머무르면서 佛法の 教化를 크게 행하였다. 建元 (479~482)末에 서울로 돌아왔다⁴¹⁾

曇超는 清河人이라고 하였음을 볼 때, 北朝에서 南朝로 남하하였다가 다시 皇帝(南齊의 太祖 蕭道成)의 命으로 遼東에 온 것으로 보인다. 清河는 중국에서 關東에 해당하는데 처음에는 北燕의 영토였다. 그 후 北燕은 太平 10년(436)에 北魏에게 멸망되는데, 이 무렵에 남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曇超가 요동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봄으로서 짐작

40) 僧朗이 北魏에 遊學하였을 시기를 長壽王 23년(435) 高句麗가 魏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 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하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僧朗의 스승인 法度の 生卒年이 437~500년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僧朗은 法度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또한 北魏에서는 太武帝가 太平 7년(446)부터 廢佛을 단행하였으므로 이 시기에 僧朗이 北魏에 遊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1) 梁 慧皎(497~554)撰, 『高僧傳』 권11, 「釋曇超傳」(大正藏 50, 400 上~中)에 의하면, “釋曇超 姓張 清河人 至齊太祖即位 被勅往遼東 弘讚禪道 停彼二年 大行法化 建元末還京”이라고 되어 있다.

해 볼 수 있다. 위의 사료에 의하면曇超가 고구려에 온 것은 長壽王 67년(479)에 해당된다. 그런데 『三國史記』의 長壽王 68년(480) 기사에 의하면 68년 4월에 南齊의 太祖 蕭道成이 왕을 책봉하여 ‘驃騎大將軍’을 삼았다. 王은 사신 餘奴 등을 보내어 南齊에 朝聘하게 하였는데 중도에서 魏의 光州 사람들에게 海上에서 붙잡혀 魏高祖로부터 越境外交라는 비난을 받고 餘奴 등이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장수왕은 다음해에도 南齊에 사신을 보내고 있음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曇超는 齊의 太祖가 보낸 즉위사절을 따라 고구려에 왔다가 요동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전한 불교는 曇始와는 달리 南朝佛敎를 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曇超의 나이가 60여세인 점으로 보아 그를 求法僧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皇帝의 命으로 遼東에 와서 禪道를 弘讚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에 이른 불교학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 曇始는 北朝佛敎를 고구려에 전한 것으로 보이며, 曇超는 南朝佛敎를 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僧朗은 齊나라의 會稽 山陰에서 鐘山 草堂寺로 옮길 무렵이었으므로 曇超와 僧朗이 서로 만날 인연은 없었다.⁴²⁾ 그러나 두 사람의 사상경

42) 양 무제의 불교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天監年間(502~519)이다. 황제권에 비교적 독립적인 남조의 승단을 무제 중심구도로 재편하는 시기로서, 불서편찬과 역경 및 주해사업 등 불교의 의학적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승단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단계이다. 또한 破佛論이나 불교의 이단에 대해 황제가 주동적으로 승단을 조직해 대처하는 등 불교적 성왕인 法王 즉 전륜성왕으로서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白衣僧正 논쟁’에서 보듯 승단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승단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제 2기는 불교의 의학적 작업이 대략 마무리되는 천감 말기부터 대통 원년(527) 同泰寺 창건 이전까지이다. 보살계 수계와 ‘斷酒肉文’, 그리고 계율의 정리 등을 통해 보살사상의 실천과 승단통제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해 무제는 황실 성원들로부터 전륜성왕으로서 찬미되기 시작한다. 제 3기는 불교적 성왕인 전륜성왕으로서 이미지 작업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동태사 창건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이다. 무제의 봉불행위는 捨身, 法會와 講經, 아육왕상 및 아육왕탑의 숭배 등으로 표현되는데, 대부분 동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규모 또한 초대형

향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曇超가 遼東에 와서 禪道를 弘讚하였듯이 僧朗은 北地에서 尸羅之本을 宿植하였고, 攝山에서 坐禪行道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⁴³⁾

광개토왕대 요동지역의 불교와 관련해서는 요동성 육왕탑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그런 다음 광개토왕과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불교계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담시와 승랑 및 담초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 광개토왕과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고구려 불교계 동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광개토왕과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고구려 불교계 동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曇始는 晉太元末年(396)에 經律 수십부를 가지고 요동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요동지역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교화하면서, ‘歸戒’를 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담시가 요동에 전한 불교에서는 계율이 강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으로 외면적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 제 3기에 들어오면 무제와 승려들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변화되었고, 무제 불교정책의 주 대상은 수많은 사부대중이며 북조를 비롯한 외국사신과 외국승려들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또한 무제의 불서 편찬, 불경 번역 등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양대 고승대덕의 활동이 대부분 천감년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당시 활동한 의학승들은 대부분 530년 이전에 사망하며, 이후에는 ‘고승전’류의 책에서 양의 의학승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이상의 내용은 소현숙(2009, 「梁 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2)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해 볼 때, 요동성 출신의 고구려 승려인 승랑이 남조에서 활동하던 시대적인 분위기 및 그가 입적한 시기도 어느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曇超(418~492)와 僧朗의 思想傾向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陳侍中尙書令 江總持記, 「攝山棲霞寺碑銘」 『金陵梵刹志』 4, “先有名德 僧朗法師者 清規挺出 碩學精詣 早成波若之性 夙植尸羅之本 闡方等之指歸 弘中道之宗致”. 安澄撰, 『中論疏記』 (대정장 65, 46 中), “乃入攝嶺 停棲霞寺 行道坐禪”. 上同, 71 中, “後攝山麓造棲霞寺 行道坐禪”. 上同, “攝山去揚州七十里 棲霞寺 行道乃至廣說”.

다음으로 승랑도 ‘淸規挺出’하였음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승랑의 불교에서도 계율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조에서 요동에 와서 교화했던曇超의 불교에서는 ‘禪道’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禪觀修行에서도 계율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시와 승랑 및 담초의 행적을 검토해보면, 모두 계율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요동지역의 고구려 불교에서는 대체로 계율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최근의 연구에서 소개되었다.⁴⁴⁾ 아래 자료가 참고된다.

<13>-① 고구려의 승랑법사가 처음 양주에 왔을 때 천자가 법사에게 칙명으로 물었다. “어떤 경론을 강의하는가” 법사가 칙명을 받들어 대답하기를, “대승경전은 모두 강의합니다”라고 하였다. 천자가 존경하며 물었다. “『화엄경』을 강의할 수 있는가” 다시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대승의 義疏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니 바로 無所得의 이치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천자가 크게 기뻐하자 (승랑은) 곧바로 여덟권의 疏를 지었다. (중략) ② 천자가 다시 물었다. “그곳 고구려에는 법사와 같이 총명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법사가 대답하였다. “칙명을 받들어 헤아려보니까 道朗 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수계를 마치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戒本을 빌려서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열어보고 암송하였는데 本寺에 이르는 길에서 암송을 끝냈습니다 (계본을) 즉시 다시 되돌려 보내자 사람들은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암송해 보라고 해서, 한 구절도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도랑이 가장 총명한 법사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루에 한 권을 암송하는 정도는 여유 있게 성취하였다⁵⁾

44) 김성철, 2008, 「승랑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3 -담경의 정체와 초당사의 위치, 그리고 『화엄의소』의 저술-」 『韓國불교학』50.

45) 作者未詳, 『三論祖師全集』(『大日本續藏經』 111, 520쪽 상~중(김성철, 2008, 위의 논문, 445~446쪽 및 각주 49에서 재인용).

『삼론조사전집』에 인용된 『대승사론현의기』의 내용을 소개한 <13>의 기록에는 승량의 학문과 성품을 짐작하게 하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 일화를 통해 승량이 『화엄경』을 無所得의 이치로 해석했다는 점, 『화엄경』에 대한 여덟 권의 疏를 저술했다는 점, 고구려에서 출가 수계했다는 점, 하루에 한 권의 경전을 암송할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나고 총명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⁴⁶⁾ <13>의 기록을 통해, 승량이 요동성에서 어떠한 불교경향을 수업하였는지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광개토왕과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불교경향은 대체로 계율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조의 불교경향이 모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광개토왕과 장수왕대 요동지역의 고구려 불교가 어떠한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요동성에 세워진 육왕탑 관련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런 속에서 ‘고려’라는 국명에 담긴 의미와 함께 ‘성왕’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개토왕과 장수왕대를 지나면서 발전했을 요동지역의 불교계 동향이 갖는 고구려적인 의미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광개토왕대 평양에 9사를 창건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

46) 김성철, 위의 논문, 2008, 445~446쪽 참고.

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불교계 동향과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동향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 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 李龍範, 1973, 「北朝前期佛敎의 高句麗傳來」 『東國大學校論文集』 12
- 李珉容, 1973, 「佛敎敎團과 初期信仰의 性格」 『東國大學校論文集』 12
- 김영대, 1980, 「해외문헌사료보초」 『불교학보』 17
-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 鄭求福, 1985, 「高麗時代의 史學史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鄭求福, 1991, 「한국의 역사가 金富軾」 『한국사 시민강좌』 9
- 鄭求福, 1992, 「高句麗의 ‘高麗’國號에 대한 一考-『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호서사학』 19-20
- 池培善, 1986, 「前,後燕의 宗敎-佛敎를 中心으로-」 『漢城史學』 4
- 申東河, 1988, 「高句麗의 寺院造成과 그 意味」 『韓國史論』 191, 서울대
- 武田幸男, 1989,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蔡印文, 1990, 「高句麗佛敎 戒律思想研究」 『佛敎學報』 27
- 盧泰敦, 1992, 「牟頭婁墓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 王健群 著/林東錫 譯, 1993,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 南武熙, 1997, 「高句麗 僧朗의 生涯와 그의 新三論思想」 『北岳史論』 4
- 南武熙, 2007, 「安原王·陽原王代 정치변동과 고구려 불교계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45
- 金善淑, 2004,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聖王’에 대한 一考」 『新羅史學報』 1
- 박운선, 2005, 「고구려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5
- 김진순, 2008,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미술사학연구』 258
-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年호와 佛敎」 『東北亞歷史論叢』 20
- 소현숙, 2009, 「梁 武帝의 佛敎政策」 『韓國古代史探究』 2
- 鄭好燮, 2009, 「高句麗 古墳의 造營과 祭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여호규, 2004, 「고구려 건국설화가 모두루무덤에 묻힌 까닭은」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5, 「高句麗의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4-5世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상현, 2005, 「中國 文獻 所載 高句麗 佛敎史 記錄의 檢討-求法僧의 東亞細亞 佛敎에의 參與를 中心으로-」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 맥브라이드 리차드, 2007, 「『삼국유사』의 신빙성 연구중국 및 한국문헌자료의 사례」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 김성철, 2008, 「승랑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3 -담경의 정체와 초당사의 위치 그리고

『화엄의소』의 저술- 『韓國불교학』 50

姜在光, 2009, 「高句麗 廣開土王의 遼東確保에 관한 新考察-廣開土王碑 ‘丁未年條’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2

■ 中文摘要 ■

广开土王和长寿王代辽东地区的高句丽佛教

南武熙

本稿旨在试说明广开土王和长寿王代辽东地区高句丽佛教的存在发展状况。为此，作者在对高句丽确保辽东地盘的过程作了细查之后，又检讨了辽东城育王塔的相关记录，从而对国名“高丽”和“圣王”这两个词所包含的历史意义提出了自己的意见。

在此基础之上，作者进一步就广开土王和长寿王代，高句丽对辽东地区佛教发展的影响意义提出了看法，同时认为，还需提示说明广开土王代在平壤创建九寺的意义这部分内容，研究才能算作完整。作者相信，以上内容如果能得到圆满的分析，以国内城为中心的高句丽佛教发展和以平壤为中心的高句丽佛教发展的共同点和差异点，就能够得到很好的阐明。所以，作者将以阐明此部分作为以后研究的着眼点。

www.kci.go.kr